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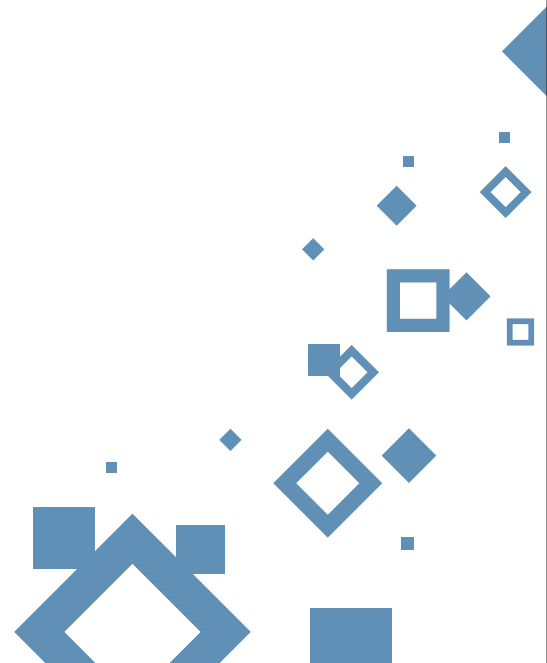


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.

(재)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



#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남계서원



(재)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

'전담해설사' 교육 교재  
파일로 연결됩니다.





# 목차

---

##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'한국의 서원'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01. 유네스코 세계유산          | 05 |
| 02. 서원의 이해             | 06 |
| 03. 서원의 주요기능           | 08 |
| 04.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   | 14 |
| 05.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   | 16 |
| 06. '한국의 서원'의 세계유산적 가치 | 17 |

## 함양 남계서원

|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|----|
| 01. 함양 남계서원 개요 | 23 |
| 02. 강학         | 29 |
| 03. 제향         | 34 |
| 04. 교류와 유식     | 39 |

##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1



## 01. 유네스코와 유산

### 세계유산

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·관리해야 할 '탁월한 보편적 가치'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

### 탁월한 보편적 가치(Outstanding Universal Value: OUV)

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,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

※ 근거: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

###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

-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**1개 이상의 기준**을 충족했는지
- **완전성과 진정성** 개념을 충족했는지
-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**보호관리계획**을 갖추었는지

※ 등재 기준, 완전성과 진정성,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



세계유산협약 전문



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 
이행을 위한 운영지침

## ‘한국의 서원’ 목록

| 서원명        | 건립 /<br>사액 연도   | 주향 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영주<br>소수서원 | 1543년/<br>1550년 | 회헌(晦軒) 안향(安珦)<br>(1243~1306)     | 사적<br>(1963) |
| 함양<br>남계서원 | 1552년/<br>1566년 | 일두(一蠹) 정여창(鄭汝昌)<br>(1450~1504)   | 사적<br>(2009) |
| 경주<br>옥산서원 | 1572년/<br>1574년 | 회재(晦齋) 이언적(李彦迪)<br>(1491~1553)   | 사적<br>(1967) |
| 안동<br>도산서원 | 1574년/<br>1575년 | 퇴계(退溪) 이황(李滉)<br>(1501~1570)     | 사적<br>(1969) |
| 장성<br>필암서원 | 1590년/<br>1662년 | 하서(河西) 김인후(金麟厚)<br>(1510~1560)   | 사적<br>(1975) |
| 달성<br>도동서원 | 1605년/<br>1607년 | 한훤당(寒暄堂) 김공필(金宏弼)<br>(1454~1504) | 사적<br>(2007) |
| 안동<br>병산서원 | 1613년/<br>1863년 | 서애(西厓) 류성룡(柳成龍)<br>(1542~1607)   | 사적<br>(1978) |
| 정읍<br>무성서원 | 1615년/<br>1696년 | 고운(孤雲) 최치원(崔致遠)<br>(857~?)       | 사적<br>(1968) |
| 논산<br>돈암서원 | 1634년/<br>1660년 | 사계(沙溪) 김장생(金長生)<br>(1548~1631)   | 사적<br>(1993) |

## 02. 서원의 이해

### 서원이란?

-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
-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, 선현先賢 제사,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
-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, 지역 문화 선도

### 서원의 기원

-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, 재위 712~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, 관리를 담당한 '여정서원'이 최초
-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, 제사기능,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
-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, 1130~1200가 세운 '백록동서원'은 학규,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
-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'백운동서원(소수서원)'의 모티브

### 한국에서 서원 성립

- 1392년 조선 건국 이래, 태조太祖, 재위 1392~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, 국학(성균관)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

-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,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
-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,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
- 주세붕周世鵬, 1495~1554의 백운동서원(훗날 소수서원) 건립 이후 이황李滉, 1501~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, 확산

### 서원의 구성원: 사람

- 향촌 지식인집단
-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-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
-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
- 관련 자료: 『원장안院長案』, 『원임안院任案』, 『입원록入院錄』 등

| 구분   | 역할   |
|------|--|
| 원장院長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◉ 서원 업무 총괄</li> <li>◉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, 관리 주체</li> <li>◉ 임기는 1~2년, 대체로 연임 허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원임院任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◉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</li> <li>◉ 도감都監, 장의掌議, 유사有司로도 불림</li> <li>◉ 서원 내 규찰, 재정 문제 담당</li> <li>◉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</li> </ul> |
| 원생院生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◉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</li> <li>◉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</li> <li>◉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
서원의 규약(規約)

- 원규院規 : 강학 · 제향 ·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
- 학규學規, 강규講規 :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
- 절목節目 :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
- 완의完議, 입의立議 :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

서원의 재정

-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, 노비,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
- 사액서원에는 서적, 토지,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
- 관련 자료: 『전답안田畝案』, 『노비안奴婢案』, 『전장기傳掌記』, 『도록都錄』 등

03. 서원의 주요 기능: 강학, 제향, 교류와 유식

강학

-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
- 개별학습인 독서,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
-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

-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
- 강학 활동은 ‘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’과 ‘공식적·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’로 구분

강학의 종류

| 구분     | 내용  |
|--------|---|
| 거접居接   |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화文會   |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.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.               |
| 거재居齋   |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  |
| 순제旬題   |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             |
| 통독通讀   |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,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  |
| 백일장白日場 |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.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|

|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|
| 향사 후의 강회<br>講會 | 향사 <sup>享祀</sup> 를 지낸 후, 「백록동규 <sup>白鹿洞規</sup> 」나 「여씨향약 <sup>呂氏鄉約</sup> 」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<sup>講生</sup> 이 강장 <sup>講長</sup> 앞에서 진강 <sup>進講</sup> 을 하는 순서로 진행.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[柱: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]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,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. |
|----------------|---|

강학 의례

| 구분            |  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| 정음례<br>庭揖禮 |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. 읍례 <sup>揖禮</sup>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.  |
|               | 상읍례        | 큰 읍 <sup>揖</sup>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  |
|               | 강습례        |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.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<sup>陳設</sup> :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-첨배 <sup>瞻拜</sup> :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-상읍 <sup>相揖</sup> :서로간 읍례를 거행함-승당 <sup>升堂</sup> :당에 오름-독규 <sup>讀規</sup> :규약을 읽음-배독 <sup>拜讀</sup> :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-진강 <sup>進講</sup> -예필 <sup>禮畢</sup> 로 이루어져 있다. |

| 구분     | 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|----------|---|
| 관습적 의례 | 경독<br>敬讀 |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<sup>白鹿洞規</sup> , 사물잡 <sup>四勿箴</sup> , 심잠 <sup>心箴</sup> , 경재잠 <sup>敬齋箴</sup> , 숙흥야매잠 <sup>夙興夜寐箴</sup> 을 낭독하는 것이다. |
|        | 개접례, 입접례 |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  |
|        | 파접례, 후접례 |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 |
|        | 귀가례      |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 |
|        | 수창시      | 수창시는 ‘회강’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 |

제향

-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
-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
-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,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, 결속을 다지는 기회

제향의 종류

| 구분 | 명칭    | 시기    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정기 | 춘추 향사 | 매년 봄·가을         |
|    | 삭망례   | 매월 초하루, 보름      |
|    | 정알례   |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|

| 구분  | 명칭  | 시기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정기 | 이안례 |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|
|     | 환안례 |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      |
|     | 위안례 |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         |
|     | 예성례 |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   |
|     | 사액례 | 사액을 받을 경우               |
|     | 치제  |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|



입제



성생례



집사분청



분향례



사우입장



제물근봉



초헌례



중헌례



철반두



파제



향약낭독



음복례

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,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

## 교류와 유식

- 교류(交流): 서원의 구성원, 서원에 방문한 명사,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·물적 교류
- 유식(遊息)
  -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. 『예기』,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(藏修: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)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,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
  -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.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(品格)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
-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
-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
-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, 토론이나 학습,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
- 남전향약, 예안향약,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
- 관련 자료: 『심원록』 등

# 04.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

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,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

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

|        | 중국의 서원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의 서원                    | 일본의 시주쿠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입 시기  | 7세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세기                      | 17세기                  |
| 설립 목적  | 유학 지식인 양성<br>→ 관료 양성<br>관학 보조 | 성리학 지식인 양성<br>지역 기반 선현 제향 | 지식인 양성                |
| 교육 대상  | 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 유생                     | 무사, 가신 그룹             |
| 교육 학문  | 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리학                       | 유학, 의학, 산학, 서양학문 등 다양 |
| 제향     | 인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로 공자 등 성현                | 지역단위 선현               |
|        | 의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부 서원만 유지                 | 현재까지 존속               |
| 사회적 기능 | 국가정책 따라 변동                    | 지역 공론 중심지<br>지역 교화 중심지    | 근대사회 전환 기여            |
| 건축     | 입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근성 고려<br>도시공간 등          | 제향인물 연고지<br>자연 경관 고려  |
|        |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학-제향-장서                  | 제향-강학-유식              |

|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건축 | 구성 요소 | 사우<br>강당, 재사<br>도서관<br>반지<br>과거합격 비석군 | 사우<br>강당, 재사<br>도서관<br>누각, 정자 | 강당<br>재사<br>도서관     |
|    | 배치 유형 | 서원별 개별성<br>강함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의 배치 유형<br>존재               | 단일건물 중심             |
|    | 경관 구성 | 인위적<br>폐쇄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연친화적<br>개방과 관입 구현            | 인위적<br>폐쇄적          |
|    | 지역 성  | 입식 생활 구조<br>의자, 화로                    | 좌식 생활 구조<br>온돌, 마루의 조화        | 좌식 생활 구조<br>다다미, 화로 |



## 06. '한국의 서원'의 세계유산적 가치

### 등재 기준

- 세계유산 등재 기준 '(iii)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' 충족
- '한국의 서원'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
-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,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

### 완전성

- 서원과 부속건물, 정문, 하마비,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
-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

### 진정성

- 형태와 디자인,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
- 활용과 기능,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
\*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
-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, 무형유산,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
\*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

## 05.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

|        | 서원   | 향교                   | 성균관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립 주체  | 사림   | 지방정부                 | 중앙정부                      |
| 분포     | 지역별 다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현별 1개               | 수도에 1개                    |
| 설립 목적  | 인성교육<br>선현제향<br>사림 활동 기반                   | 관료 양성<br>교육<br>공자 제향 | 관료 양성<br>교육<br>공자 제향      |
| 사회적 역할 | 지역 공론 형성<br>지역 문화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유생 공론 형성                  |
| 입지     | 제향 대상과 관련<br>교육 목적에 부합                     | 지방 행정<br>중심지         | 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성 요소  | 사우(선현), 전사청<br>강당, 재사, 도서관<br>(경각), 누각, 정자 | 문묘, 전사청<br>강당, 재사    | 문묘, 전사청<br>강당, 재사,<br>도서관 |
| 건축 유형  | 제향-강학-교류,<br>유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학-제향                | 강학-제향                     |

-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,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
-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, 수양처, 거주지, 묘소 등과 관련

### 수려한 주변 경관

-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
-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,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
- 많은 서원들이 강, 산, 계곡,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
- 특히 정자,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

### ‘한국의 서원’ 건축 특성

#### 보편성

- ‘한국의 서원’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, 강학공간,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
-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

### 보호 및 관리계획

-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
-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
-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, 증축,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

### 연속유산으로서 ‘한국의 서원’

#### 연속유산이란

- ‘연속유산’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
-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,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
- 세계유산 ‘한국의 서원’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

### ‘한국의 서원’ 입지 특성

####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

-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

## 강학공간

- 건물: 강당, 재사, 장서각, 장판각 등
-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
  - 강당: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,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
  - 재사: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, 서재로 구성, 학생들의 기거 공간
  - 장서각, 장판각: 목판이나 도서 보관

## 교류와 유식공간

- 건물: 누각, 정자 등
- 누각은 누정,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,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
- 연못,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,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

## 기타

- 고직사, 교육시설, 하마비, 홍살문, 기념비 등
- 하마비,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
  - 고직사: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
  - 교육시설: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,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
  - 하마비: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
  - 홍살문: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

-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

## 독자성

- ‘한국의 서원’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
-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,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
-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,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, 건축 구조 형성

## 공간 구분

### 제향공간

- 건물: 사우, 전사청, 제기고 등
-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
-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, 별도 출입문 설치
  - 사우: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
  - 전사청: 제물,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
  - 제기고: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

## ‘한국의 서원’ 서원별 세계유산가치

| 서원명        | 세계유산가치  |
|------------|---|
| 영주<br>소수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초로 건립된 서원</li> <li>강학,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함양<br>남계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</li> <li>강당과 사당,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</li> </ul> |
| 경주<br>옥산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판,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</li> <li>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</li> </ul>       |
| 안동<br>도산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</li> <li>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장성<br>필암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</li> <li>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달성<br>도동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규,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</li> <li>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</li> </ul>     |
| 안동<br>병산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</li> <li>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읍<br>무성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</li> <li>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논산<br>돈암서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</li> <li>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</li> </ul>           |

## 함양 남계서원

### 01. 함양 남계서원 개요

#### (1) 건립

##### 강익의 건립 동기

- 일두-蠹 정여창鄭汝昌, 1450~1504의 학행은 고을의 의표儀表이자 학사學士의 모범
- 정여창의 고향에 서원을 건립하지 않는 것은 고을의 수치
- 정여창의 유풍遺風, 유훈遺訓을 통해 후학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##### 서원 창건 반대 여론

- 비방과 분분한 의견으로 초기 건립에 어려움 있었음
- 기존 유림 조직인 유향소에서 반대
- 국내의 서원에 대한 견문과 식견이 부족
- 향교가 학교 역할 수행 가능하여 별도건립 불필요 (+남계서원경임안서)

##### 건립 과정

- 1552년 강익姜翼, 1523~1567의 주도 하에 함양 유림 박승임朴承任, 1517~1586, 노관盧祿, 1522~1574, 정복현鄭復顯, 1521~1591, 임희무林希茂, 1527~1577 등 서원 건립 결의



- 함양, 산음, 거창지역 사람의 기부
- 경상도 관찰사들에게 요청하여 소금, 어물, 종이 등 필수 품목을 봄, 가을로 받고, 노비 등을 지원받음

## 서원 재원 관리[원규]

- 유사(有司)가 인수인계 시 재산과 물품을 반드시 대조한 후 인계할 것
- 서원 토지세는 소작세로 충당하고 만약 재난이 있으면 추수 전 농작물의 풍흉을 살펴볼 것
- 향례에 쓰이는 비용은 소작세에서 봄, 가을로 각 15석씩 예봉(例封)하여 맞추어 사용할 것
- 소를 잡는 가격은 150냥으로 정할 것
- 서원에서 재물 사용시 증명 없이는 시행할 수 없음
- 유사가 공적으로 접대하는 비용은 15냥 이내로 정할 것
- 만약 알묘(謁廟) 참여 인원에 대한 접대 비용이 과하면 헤아려서 삭감할 것

## 남계서원 재정 관련 유물

### 부보록(褒寶錄)

- 창건부터 19세기까지 지방 수령 및 사람의 기부 내역과 관련된 장부
- 명단, 액수, 물품 등 기재
- 초창기 서원 창건에 필요한 경제적 규모, 수령의 지원 상황 확인

- 1555년 군수 서구연(徐九淵, 1502~1562)의 지원으로 강당을 세웠으나 상(喪)을 당한 서구연의 체직(遞職)과 흉년, 후임 군수의 미온적인 지원으로 공사 중단
- 1559년 강익이 군수 윤확(尹確)의 지원으로 공사 재시작
- 1561년 서원 묘우를 강당 동쪽에 완공
- 1561년 2월 정여창 위판 봉안
- 1564년 함양군수 김우홍(金宇弘, 1522~1590)의 지원으로 동재·서재 건립 및 작은 못과 주변 조경

## 남계서원 재건

-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남계서원 전소
  - \* 남계서원은 16세기 후반 왜군에 대한 의병활동 주도
- 1599년 땅 속에 묻어둔 정여창의 위판은 보존되어 임시로 두 칸의 사우를 지어 봉안 후 제례
- 1600년 신계서원(新溪書院)과 함께 나촌(羅村)으로 이건 계획했으나 신계서원의 노진과 남계서원의 강익의 위차 문제로 함양의 사론 대립
- 1612년 옛 자리에 서원건물 짓고 남계서원 재건

## 남계서원 재정 마련

- 초기에 고을의 유림 및 인근 고을에서 쌀과 곡식 기부
- 초기 강당 공사 후 남은 재물의 증식
- 지례(知禮), 거창(居昌), 부안(扶安), 산음(山陰), 안음(安陰), 단성(丹城) 수령의 기부

## (2) 사액

### 남계서원 사액

- 강익을 비롯한 함양 사람들의 사액 요청
- 1566년 경상도 관찰사 강사상(姜士尙, 1519~1581)이 계를 올림
  - \* 정여창의 학문, 행적 칭송 및 서원 건립 과정 설명
  - \* 소수서원과 임고서원과 같이 사액 요청
  - \* 서원의 지속을 위하여 사액 요청
- 1566년 6월 예조에서 논의 후 편액과 서책 권장 요청
- 1566년 7월 남계(濞溪)로 사액
  - \* 노진(盧禎, 1518~1578), 양희(梁喜, 1515~1580), 이후백(李後白, 1520~1578)이 사액 과정에서 힘을 보탬

### 남계(濞溪)의 의미

- 서원 곁 시내의 이름

## (3) 운영

### 남계서원 원규

- 제생들은 독서할 때 사서오경(四書五經)을 근본으로 삼고, 『소학(小學)』과 『가례(家禮)』를 문호로 삼아 국가가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도를 따르며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따라라
- 제생들은 건고하게 뜻을 세우고 따르고 향하는 바를 바르고 곧게 하여, 학업을 원대하게 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행동은 도의(道義)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이다
- 제생들은 항상 마땅히 각자 서재에 조용히 거처하며 오로지 독서에 전념하라

- 성균관 명륜당에는 이천(伊川) 선생의 사물잠(四勿箴)과 회암(晦庵) 선생의 백록동규(白鹿洞規)가 열 가지 가르침, 진무경(陳茂卿)의 숙흥야매잠(夙興夜寐箴)이 걸려 있는데, 이것들의 뜻이 매우 좋으니 서원에 여러 벽 위에 걸어두고 서로 경계하라
- 책은 밖으로 내지 말고, 여색을 문 안에 들이지 말며, 술을 빚지 말고 형벌을 사용하지 마라
- 서원의 유사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청렴하고 유능한 품관(品官) 1인에게 일을 맡기고, 유사(儒士) 중 일의 이치를 알고 옳은 일을 행하여 사람들이 받들고 따르는 자 1인을 상유사(上宥司)로 삼되, 모두 2년마다 교체하라
- 제생과 유사는 예를 지켜 서로를 대하고, 공경과 믿음으로 서로 대우하도록 힘써라
- 서원에 속한 사람을 너그럽이 돌보아라
- 서원을 세워 선비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문(文)을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새로운 인재를 일으키려는 뜻이니, 사람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라
- 동몽(童蒙)은 수업을 받거나 부름을 받지 않으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
- 임시 원생은 관례 여부에 상관없이 정원은 없고 인재라면 곧 서원에 천거하라
- 서원을 짓기 시작할 때는 영구히 전해지기를 바라지만, 만약 이후에 때때로 고치고 지붕을 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니 만일 비가 새서 허물어지려고 하면 유사(儒士)가 곧 관(官)에 알려 때에 맞춰 수리하라

- 모든 원생 및 서원을 찾은 선비들이 알묘謁廟할 때는 정자관 程子冠과 검은 단령團領을 입고 예를 행하라
- \* 원규의 앞부분만 간략하게 제공하였음, 자세한 내용은 『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』 참고

## 남계서원 서적 관리[원규]

- 서원의 서책은 서원 안에서 책을 읽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면 일체 빌려주지 말 것
- 서책은 매년 여름이 지난 후 수효를 맞추어보고 햇빛에 말릴 것
- 미진한 조목은 추후에 보강할 것

## (4) 남계서원의 공간 구성

### 남계서원의 입지

-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
- 연화산 끝자락 전면에 들판이 조성된 탁 트인 경사지에 입지
- 지리산과 덕유산의 중간지역 분지
- 남계천濫溪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름
- 서향으로 배치되어 남쪽을 바라보는 입지
- 선현인 정여창의 묘역 및 거주지 부근에 입지

## 남계서원 건물배치도

- 현재 배치는 1612년에 이루어짐
- 홍살문, 풍영루, 강학공간, 제향공간이 종축선에 맞추어 배치된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



## 02. 강학

### 건물

#### 명성당(明誠堂)

- 목적: 유림 모임 및 학문 강론의 장소
- 창건연도: 1559년 / 중건연도: 1612년
- 명성明誠: 『중용中庸』의 밝게 되면 정성스럽게 된다[明則誠]에서 취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참됨에 이르게 한다는 뜻
- 정면 4칸,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

- 정면 4칸 강당 구성은 초기 서원에서 주로 보임
- 왼쪽 협실: 거경재居敬齋 / 오른쪽 협실: 집의재集義齋

## 명당 관련 유물

## 남계서원 현판

- ‘남계藍溪’와 ‘서원書院’을 두 자씩 떼어 별도 현판으로 만들
- ‘서원’ 현판 끝에 새겨 놓은 ‘가정사십오년병인칠월일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日’을 통해 1566년(가정 45년 병인)에 사액 사실 확인

## 명성당 현판

- 2칸 대청 중 우측 칸의 뒷벽 상부에 있음
- 현판의 글씨는 남명(南冥) 조식(趙植, 1501~1572)의 제자 매암(梅菴) 조식(趙植, 1526~1572)이 쓴 것

## 거경재, 집의재 현판

- 대청 좌우 온돌방 앞에 위치
- 거경居敬: 정자程子의 가르침 거경궁리居敬窮理에서 취한 것으로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서 바르게 가지는 것
- 집의集義: 『맹자孟子』의 집의이생集義以生에서 취한 것으로 집의는 저선積善과 같아 옳은 일을 쌓아 기氣를 기르는 것

## 남계서원 춘추향사 집사분정판

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배위 | 사생 | 학생 | 존작 | 봉작 | 봉로 | 봉향 | 사준 | 장찬 | 장생 | 판진설 | 찬인 | 집례 | 대축 | 종헌관 | 아헌관 | 초헌관 | 향집사분정 | 남계서원추추 |
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
|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|
|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제 | 학생 | 존작 | 봉작 | 봉로 | 봉향 | 사준 | 판진설 | 찬인 | 별묘 | 존작 | 봉작 | 봉로 | 봉향 | 사준 |
|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
## 남계서원 원규(院規)

- 13개 조항으로 구성
- 남계서원 운영의 전반을 보여줌
- 내용은 위의 남계서원 원규에서 확인

## 양정재(養正齋)·보인재(輔仁齋)

- 목적: 학생들의 기숙 및 개인 학습 공간
- 창건연도: 1564년 / 중건연도: 1612년
- 정면 2칸,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
- 양정養正: 『주역周易』의 몽이양정蒙以養正에서 취한 것으로 어리고 몽매할 때 올바르게 기르라는 교육을 가리킴
- 보인輔仁: 『논어論語』의 이우보인以友輔仁에서 취한 것으로 부족한 인仁을 친구와 서로 권하여 돕는다는 뜻
- 강당 중심으로 기숙사가 배치된 최초의 형태



## 양정재·보인재 관련 유물

### 양정재 현판

- 16세기 제작
- 온돌방 앞 위치

### 애련헌 현판

- 양정재의 누마루 위에 위치
- 강익은 정여창이 흠모하는 송의 성리학자 주돈이(周敦頤, 1017~1073)의 영향을 받아 연꽃과 매화를 좋아해서 동, 서재의 이름을 각각 애련헌, 영매헌으로 지음

### 보인재 현판

- 16세기 제작
- 온돌방 앞 위치

### 영매헌 현판

- 보인재의 누마루 위에 위치

## 장판각

- 목적: 강학 활동과 연관된 교재, 목판 등 보관
- 창건연도: 1570년 / 중건연도: 1922년
- 정면 2칸, 측면 각 1칸의 우진각지붕 건물
- 전면 상부 판벽에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있음
- 보관되어 있던 책들은 현재 함양박물관 소장

## 장판각 관련 유물

### 부보록(裋寶錄)

- 정유재란 당시 서원이 파괴되기 전까지 서원이 소장한 서적 목록 확인
- 서적의 상당수는 지방관이 기증
- 정유재란 후 서책을 다시 기증 받거나 구입, 판본이 있는 다른 고을에 종이를 보내 찍어 옴
- 수집한 서책의 출처, 서명을 통해 전체적인 현황 확인
- 남계서원 자체적으로 도서 간행 진행

## 묘정비각

- 보인재 남측에 위치
- 정면 및 측면이 각 1칸의 맞배지붕

## 묘정비각 유물

### 남계묘정비

- 남계서원 제향인물들을 칭송하기 위해 1779년 건립된 비석
- 우리나라 유학과 서원의 내력, 정여창, 강익, 정운의 주요 행적을 기술
- 김종후(金鍾厚, 1721~1780)가 지음
  - \* 자세한 내용은 『함양 남계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』, 『함양 남계서원 종합정비 기본계획』 참고

## 교육

-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
- 서원의 건립과 재건을 주도한 강익은 교육활동에 많은 노력 기울임

## 교육과정

- 강당이 있던 1559년 부터 교육활동 시작
- 초기에는 서원 향사를 지낸 후 유학 경전을 가지고 논변
- 제사의례 후 경전을 강독하는 통독 진행
- 매달 초 제생들을 모아 강독
- 비정기적으로 유명학자 모셔 경전 내용 듣는 강회 진행
- 동재, 서재 완성 후 일정기간 유생들이 기숙하며 집중 교육 진행
- 남계서원의 강회에는 약 20-30명에 달하는 인물이 참석

## 03. 제향

### 배향인물

#### 정여창(鄭汝昌)

- 명나라 사신 장영(張寧)이 정여창을 보고 기특히 여겨 이름을 지어줌
- 자는 백옥(伯玉), 호는 일두(一蠹), 수옹(睡翁), 시호는 문헌(文獻)

- 일두는 북송의 유학자 정이천(程伊川, 1033~1077)의 천지간 한 마리 좀벌레(天地間一蠹)에서 취한 것으로 책만 보는 서생이라는 의미, 겸양의 표현
- 수옹은 잘 조는 노인이라는 뜻
- 저서: 『일두유집(一蠹遺集)』

#### 정온(鄭蘊)

- 자는 휘원(輝遠), 호는 동계(桐溪), 고고자(鼓鼓子), 시호는 문간(文簡)
- 저서: 『동계집(桐溪集)』, 『덕변록(德辨錄)』

#### 강익(姜翼)

- 자는 중보(仲輔), 호는 개암(介庵), 송암(松庵)
- 저서: 『개암집(介庵集)』

## 건물

### 사우

-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
- 정면 3칸, 측면 1.5칸의 맞배지붕 건물
- 대부분의 서원에는 당호(堂號, 1488~1547)가 있지만 남계서원의 사당에는 없음

### 전사청

- 목적: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, 제향 준비용 건물

## ① 제수 구입

- 유사가 향사 이틀 전 품질이 좋고 정갈한 제수 구입
- 가격을 흥정하지 않음

## ② 제물 근봉

- 고직사에서 제물 손질 후 주향위, 종향위 구분하여 근봉(謹封)

## ③ 입재

- 제사를 앞두고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며 재계
- 본래 향사 3일 전에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전일 입재
- 입재 후 서원 밖 출입 통제

## ④ 제관 분정

- 유고가 없으면 지난 원회에서 선임한대로 분정

## ⑤ 성생례(省牲禮)

- 제관들이 제향에 올릴 희생(犧牲) 감정
- 대축이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 세 번 물으면 초헌관이 세 번 답함
- \* 축이 충(充)하고 세 번 묻고, 헌관이 돌(臚)이라고 하여 충분히 살쥔다고 답함, 서원에 따라 질문하는 제관과 충, 돌의 질답 순서가 바뀌기도 함

## ⑥ 제수 감정

- 근봉한 제수를 풍영루 2층 누마루로 옮겨 진설 전 품목과 상태 최종 점검

- 정면 3칸, 측면 1.5칸의 맞배지붕 건물
- 좌측 1칸은 우물마루 바닥, 중앙칸은 온돌, 우측 1칸은 부엌으로 구성

## 의례

### 남계서원 향사(享祀)

- 정여창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목적
-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(中丁日)에 춘추향사 거행
  - \* 중정일: 한 달 중 십간의 정(丁)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
- 매월 초하루, 보름 분향례 거행
- 정여창을 주향으로 모시고, 정온과 강익을 좌우에 배향

### 남계서원 분향례(焚香禮)

- 내·외임 유사(有司)들이 하루 전날 서원 입재
- 날이 밝기 전 사당에 올라 예를 올림
- 주향을 시작으로 3위에 차례로 분향 후 한꺼번에 재배

### 남계서원 향사 준비

- 매년 음력 2월, 8월 중정일 오전 5시 거행
- 명성당에서 원회(院會)가 소집되어 헌관 및 주요 제관 선출
- 제관 선임 후 제관선정기를 강당에 붙여 공고

## ④ 음복수조(飮福受胙)

-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 맛봄

## ⑤ 철변두(撤籩豆)

-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둬
- 의례가 끝난 후 제관들이 명성당에 모여 개좌하여 별도의 음복 없이 향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

## 남계서원 향사의 특징

- 매월 삭망 분향례를 유사가 전일 입재하여 행함
  - 춘추향사에서 제관들이 전일 입재하여 향사준비를 옛 법식에 맞추어 행함
  - 초헌례 때 전폐례와 헌작례를 함께 행함
- \* 자세한 사항은 『서원향사』 남계서원 참고

## 04. 교류와 유식

-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서 정자, 누마루 등으로 구성
  - 서원과 서원,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
  -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
- \* 남계서원은 유식 공간의 개념을 구현한 최초의 서원

## ⑦ 사축(寫祝)

- 입재 당일 해가 지기 전 대축이 사당 앞 월대 위에서 축문 작성

## ⑧ 진설(陳設)

- 제수를 제기(祭器)에 담고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
- 향사 전일 오후 6시 제수를 사당으로 옮김
- 문헌공위, 정온위, 강익위 순으로 진설

## 남계서원 향사 절차

- 당일 오전 3시 제관들이 기상하여 세수하고 의관 정제
- 유사가 향사의 마지막 준비 완료
- 강당에 모여 오전 5시 상읍례를 행하고 향사 시작

## ① 초헌례(初獻禮)

-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림
- 남계서원에서는 향을 올리고 신주 앞에 폐백을 드리는 전폐례(奠幣禮)와 함께 진행

## ② 아헌례(亞獻禮)

-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림

## ③ 종헌례(終獻禮)

-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림



## 건물

### 풍영루(風詠樓)

- 출입문 및 회합과 유식의 기능
- 정면 3칸,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
- 풍영: 『논어論語』에 ‘기수沂水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舞雩, 제단에서 바람 씌고 시를 읊조리며 돌아오겠다’는 것에서 취함
- 1847년 화재로 소실, 1849년 중건, 1937년 대대적 수리
- 서원 건축에서 누마루가 보편화 되었던 19세기 이르러 건립
- 창건 당시에는 ‘준도문遵道門’이라고 불리며 출입문의 기능만 한 것으로 추정

##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가치

### 지역유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립된 서원

- 1552년에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
- 최초로 지역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서원 건립 및 운영
- 경사지에 문루, 강당과 사당 건물을 위계적으로 배치, 전학후묘前學後廟와 전재후당前齋後堂 등 한국 서원의 독창적 배치 방식 제시
- 조선시대 명현名賢을 봉사한 최초의 서원
- 제향-강학-교류와 유식공간 영역을 구분하여 하나의 축선 상에 일렬로 배치
- 최소한의 공간구성을 통해 서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

위치 : 경상남도 함양군

건립 및 사액 : 1552년 건립 / 1566년 사액

주향 인물 : 정여창鄭汝昌, 1450-1504

## 주요 특징

### - 구성 및 입지

- 제향-강학-교류-유식으로 구성된 상하 축선 배치형식을 최초로 제시함. 전면에 임야와 하천인 남계를 바라보는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을 제시함

### - 특징

- 한국 서원 중에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 사림이 주도하여 최초로 건립되어, 민간이 자발적으로 건립·운영한 사립학교로서의 전형을 제시함
- 남계서원의 건립 당시에는 서원 입구에 누마루가 존재하지 않고, 재사 누마루 앞마당에 연지蓮池를 조성함. 19세기에 이르러 별도의 누각인 풍영루가 건립되어 사우-강당-누마루로 한국 서원의 정형을 구성함. 입구 누각의 도입 등 서원 배치의 변화 양상을 보여줌

## MEMO